

삼성, 설 앞두고 ‘온정’… 협력사에 1.2兆 조기지급

19개 계열사, 직거래장터 개설
전국 자매마을·중소기업과 ‘상생’

삼성이 설을 앞두고 상생 활동에 매진한다.

삼성은 설 명절에 앞서 협력사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삼성이 지급할 조기 대금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삼성물산과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웰스토리 및 삼성엔지니어링과 제일기획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평소보다 최대 2주 이상 빨리 지급하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협력사 물품 대금을 월 4회 현금으로 지급해왔으며, 계열사 역시 월 3~8회 현금을 지급하며 상생을 추구해왔다. 2018년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따라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탕정 직거래 장터. /삼성

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4조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명절 맞이 직거래 장터도 이어간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등 19개 계열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국 주요 사업장 자매 마을과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참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리다.

삼성전자는 7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

설해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도 열기로 했다. 수원사업장에서 14일과 15일 열린 직거래 장터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마을에서 사과와 배, 한우세트 등 농산물 180여종이 판매됐다. 평택사업장에서도 19개 평택 농가가 참여해 배와 쌀, 버섯 등을 판매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KT, AI로 춘천 홀몸 어르신 돌본다

AI돌봄서비스 등 사회문제 해결 앞장

SK텔레콤이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손잡고 SK텔레콤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춘천시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ICT 인프라 환경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춘천시청에서 ‘ICT 기술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SK텔레콤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

한다.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행복한 애코폰’과 협력해 여러 지자체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한 ICT 연계 복지 서비스다. 감성 대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및 날씨, 건강 상식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위급 상황에서 음성만으로도 119를 호출할 수도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월 17일(음 12월 23일)



36년생 자녀의 방문으로 지갑이 빈다. 48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것이 낫다. 60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72년생 순풍에 뒷단배 가듯이 순조롭다. 8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니 아픈 마음.



37년생 변화의 운이나 이동도 길하다. 49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도 있다. 6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얹어먹는다. 73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85년생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38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50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2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74년생 지나친 간섭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8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3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51년생 충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63년생 얼룩진 옷을 바리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75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87년생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일이 해결.



40년생 나눠주지 않으면 돈 자랑하지 마라. 52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친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6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6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88년생 종일 운전 주의.



41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53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5년생 계으른 사람이 말이 많은 법. 77년생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끔히 청소. 89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42년생



43년생



44년생



45년생



46년생



47년생

48년생

49년생

50년생

51년생

52년생

53년생

54년생

55년생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

63년생

64년생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

74년생

75년생

76년생

77년생

78년생

79년생

80년생

81년생

82년생

83년생

84년생

85년생

86년생

87년생

88년생

89년생

90년생

91년생

92년생

93년생

94년생

95년생

96년생

97년생

98년생

99년생

100년생

101년생

102년생

103년생

104년생

105년생

106년생

107년생

108년생

109년생

110년생

111년생

112년생

113년생

114년생

115년생

116년생

117년생

118년생

119년생

120년생

121년생

122년생

123년생

124년생

125년생

126년생

127년생

128년생

129년생

130년생

131년생

132년생

133년생

134년생

135년생

136년생

137년생

138년생

139년생

140년생

141년생

142년생

143년생

144년생

145년생

146년생

147년생

148년생

149년생

150년생

151년생

152년생

153년생

154년생

155년생

156년생

157년생

158년생

159년생

160년생

161년생

162년생

163년생

164년생

165년생